

# 동화책 작가 된 초등학생들

### 담양 고서 초등생 8명 글·삽화 배다인 동화작가와 6개월 수업 '5학년 동화책' 완간...7편 수록 출판기념회·원화전시회 개최도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어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성과물을 낼 수 있었다는 데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배다인 동화작가는 얼마 전 담양 고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과 동화책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직접 글을 쓰고, 삽화를 그리는 과정이었다.

배 작가가 건넨 ‘우리도 동화책을 만들어요-고서초등학교 5학년 동화책’에선 시골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특유의 동심이 느껴진다. 8명 학생이 참여했으며 모두 7편이 수록돼 있다. 1명이 1편을 쓰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1편은 2명이 협업을 통해 완성했다.

각각의 작품은 ‘순이의 마법레시피 뽀기 대소동’ (조하랑), ‘핑퐁이 된 나나’ (이명서, 이승아), ‘나의 담양 이야기’ (김순덕), ‘꿈’ (김도원), ‘개구쟁이들의 전쟁’ (임지윤), ‘떡보’ (이윤호), ‘상상’ (이승연)이다.

이번 동화책 만들기 프로젝트는 예술체험과 지역 상징물을 동화에 접목해 상상력과 감성을 기르는 데 있다. 담양교육지원청이 담양문화원과 연계해 독서인문교육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담양의 상징물을 모티브로 지역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서연 유초등교육팀 담당 장학사는 “외부 동화작가가 직접 와서 아이들을 지도해준 덕분에 표현력과 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됐다”며 “과정이 끝나고 아이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는데 ‘지도 선생님처럼 자신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수업은 지난 2학기 10주간, 1주에 2시간씩 진행됐다. 삽화는 미술시간을 활용해 선생님 지도를



담양 고서 초등생들이 동화책을 발간하고 조출한 축하 행사를 가졌다. <배다인 동화작가 제공>

받아 내용에 맞게 그리는 순서로 이뤄졌다.

배 작가는 “작품의 소재는 담양의 상징물이나 특산물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자유롭게 취사선택 하도록 했다”며 “자기만의 생각을 글로 옮기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학생 중에 김순덕 어르신은 70대 후반의 연세이지만 충실한 과정을 이수했다. 배 작가에 따르면 어르신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를 다녔다. 2학년 2학기 때 허리 협착증 수술을 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4학년 1학기 때는 발에서 일을 하다 넘어져서 또 병원 신세를 졌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다 극복했으며 이번 동화책 제작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나의 담양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공부를 늘 하고 싶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싶습니다.(중략) 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교과서를 받았을 때는 낱아갈 듯이 기뻐했습니다. 1학년 때 김미희 선생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동년배 시골 어르신들의 어려웠던 삶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자신만의 문장과 그림으로 묘사한 작품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조하랑 어린이의 ‘순이의 마법레시피 뽀기 대소

동’은 대나무 마을에 사는 친구 대무와 나무, 죽순의 이야기를 엮었다. 스토리 공간도 죽녹원, 관방재림, 메타프로방스 등 친숙한 장소가 등장한다. 마법 등 판타지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가미해 상상력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배 작가는 “아무리 AI시대가 도래한다 해도 예술영역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분야이다. 또한 시골학교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가 지역과 밀착된 특화된 예술 교육”이라며 “아이들이 이번 동화모음집 만들기를 하면서 담양에 대한 상당한 애정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학교에서는 동화모음집이 완간되고 나서 간단한 출판기념회와 원화전시회도 가졌다. 아이들이 직접 책에 친필 서명을 해 ‘작가’가 되는 체험도 할 수 있었다.

한편 5학년 지도교사를 맡고 있는 김충만 교사는 “어린이 마음처럼”이라는 문구를 좋아하는데, 작은 학교의 강점이 아이들 마음을 하나하나 볼 수 있다는 점”이라며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시대라고 하지만 이런 기회들을 통해 책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아이들이 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삶의 어둠과 빛, 따로 또 같이

### 광주 출신 박인하 시인 ‘내가 버린 애인은 울고 있을까’ 펴내

삶은 더러 경계를 지날 때가 있다. 간절기는 계절과 계절 사이에 드리워진 경계선이다. 작금의 겨울과 봄 사이 어느 특정한 경계에 놓인 때다.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으면 겨울은 줄담음치듯 달아나고 봄이 몰밀 듯이 밀려들 것이다.

광주 출신 박인하 시인의 시들은 명확하게 확정 지을 수 없는 어떤 경계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문학은 모호함과 규정할 수 없는 삶의 양태들을 자신의 언어로 그려내는 작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박 시인의 시는 그런 특질을 가장 잘 보여준다 하겠다.

박 시인이 최근 첫 시집 ‘내가 버린 애인은 울고 있을까’ (겉은 사립)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작품을 펴냈다.

그는 최근 동화에서 “오래 전에 문예창작을 공부했지만 세상 밖으로 용기있게 뛰쳐나오지 못했다”며 “지난 2018년 ‘서정시학’ 신인상으로 등단하면서 창작의 세계로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시인이 이번에 펴낸 작품은 모두 50여 편. 이성혁 문학평론가는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는 표현주의 화가 몽크의 그림이었다”며 “이 시집에서 시인은 죽음과의 대면을 집요하게 시도했다”고 평한다.

이성혁 문학평론가의 일련의 평은 다음의 ‘시인의 말’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한다. “남의 집 옥상에서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마당으로도 담장 밖으로도 뛰어낼 수 없는 꿈 밤은 넓고 깊었다.”



꿈을 꾸며, 꿈 속에서 화자는 자신만의 시를 쓰고 있다. 대부분 시들이 밤을 배경으로 펼쳐진다는 점에서 우울하면서도 이색적이다.

“떡먹는 밤이었다/ 말라가는 나무는 화분 속에서 제 잎을 뜯어내고/ 다른 손으로는 무덤을 만들어 나갔다/ 흙을 나눠 덮었다/ 어둠이 쌓이면 일렁이는 별들/ 한꺼번에 달려드는 얼굴들을 세며/ 시력이 나빠졌다/ 어느 곳으로도 건너갈 수 없어/ 푸른색의 피로 미쳐 가는 밤...”

위 시 ‘검은 식물’은 화자가 죽음을 모티브로 내면의 절규를 풀어낸 것이다. 이 평론가는 “이 시집에서 가장 격렬하고 경악스러운 이미지를 방출하고 있는 시”라고 명명했는데, 작품 전반에 걸쳐 검은 식물의 이미지가 암울하면서도 그로테스크하게 표현돼 있다. 아마도 화자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검은 식물이 처한 ‘죽음의 시간’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화자의 밤은, 두려움과 죽음이라는 경계를 넘어 다시 시작을 환기하는 중의적 의미로도 다가온다. 박 시인의 시가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인 듯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흑피옥 발굴’ 김희용 수집가 삶 조명

### 광주 출신 고유물수집가...광주차이나센터, 26일 춘계 세미나

“중국 전역과 몽골 황무지를 누비며 수수께끼의 조각상 흑피옥(黑皮玉)을 발굴하고 수집해온 풍운아 김희용. 신비한 형상의 흑피옥의 정체와 김희용의 삶을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광주차이나센터(센터장 조경완 호남대교수)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차이나센터 다목적실에서 ‘중국 고유물수집가 김희용의 삶과 흑피옥’이란 주제로 춘계 세미나를 연다.

광주 출신 고유물 수집가인 김희용은 만년에 청옥의 몸체에 검은 도료가 칠해진 수수께끼의 고대 조각상(흑피옥) 수백점을 내몽골 지역에서 발굴, 수집해 2007년 전후 ‘흑피옥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학계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한채 2013년 작고했다. 김씨는 생전에 자신이 수집한 흑피옥 500여점을 중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중국 당국에 전달하고 공개적인 발굴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세미나에서는 김씨의 장남 김승현씨가 생전 아버지의 삶을 회고하고 김씨의 지인들이 김씨와 흑피옥 수집, 반입과정에 얽힌 이야기들을 공개하게 된다.

또 그동안 흑피옥 연구를 지속해온 정건재 전 전남과학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한중 양국의 흑피옥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중국당국에 동아시아 공동의 고대문화유산이 될 흑피옥의 본격적 연구



흑피옥 조각상

를 촉구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앞서 광주 차이나센터 갤러리에는 김희용이 수집한 흑피옥 10여점이 공개된다.

광주 차이나센터 조경완 센터장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고대 문명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흑피옥에 관한 내용 등이 다뤄질 예정”이라며 “흥미로운 주제의 세미나에 중국과 한국 고대문화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마리 퀴리’ 공연 보고 과학 이야기 나누고

### 광주예술의전당, 29일 뮤지컬 워크숍&마스터클래스 개최

뮤지컬 ‘마리 퀴리’ 공연 실황을 관람하고, 물리학 교수와 함께 방사능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전당)이 뮤지컬 ‘마리 퀴리’ 워크숍&마스터클래스 강령생을 모집한다. 공연은 라이브(주)가 기획했으며 전당 공지사항 내 구글 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워크숍 및 클래스는 오는 29일 오후 2시~4시 30분 광주시립오페라단 연습실(광주 북구 북문대로 60, 별관동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뮤지컬 ‘마리 퀴리’ 또는 물리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부산대 물리학과 이창환 교수가 과학자 마리 퀴리의 삶, 리듬과 방사능의 원리를 들려주는 프로

그램이 마련된다. 뮤지컬 평론가 박병성의 해설을 곁들여 공연 실황을 들여다보고, 뮤지컬 넘버들을 만나는 시간도 마련된다.

마리와 피에르, 남학생들이 부르는 ‘블랙 미스 폴란드’를 비롯해 마리의 ‘또 다른 이름’, 아멜리에 등의 ‘죽은 작곡가들을 위한 볼레로’를 감상할 수 있다.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이번 공연을 제작한 라이브(주) 강병원 대표, 김현준 실장 등이 뮤지컬 글로벌 라인업과 영미권 진출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이다.

무료 진행. /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